

서 평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편, 『중국여성연구』 아세아여성연구총서 제1집,
서울:숙명여대출판부, 1989

장 경 설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 및 개방 정책은 남성과 여성에게 많은 상이한 결과들을 초래했다. 그동안 사회주의의 변화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이 정치, 경제 분야의 거시적 변화들에 주로 초점을 맞추므로써 급변하는 여성들의 운명의 특수성을 미처 감안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같은 맥락에서 淑明女大에서 아세아여성연구총서로 펴낸 『中國女性研究』는 학계와 일반 대중 사이에 中國을 비롯한 (구)사회주의권의 최근 변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鄧小平 지도하에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중국의 개혁정책이 여성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여성정책, 경제활동, 사회문화적 변동, 사회복지, 문학, 교육 분야로 나눠 각 분야의 전문연구자들의 체계적 평가를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업적들은 아직 改革期 중국 여성문제에 관한 중국 내외의 자료나 학술문헌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더우기 국내 학자들의 중국에 대한 연구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어려운 연구의 결과들이므로 사용자료 및 분석내용 가운데는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섯 편의 논문에 소개된 다양한 문제와 논점은 개혁기 중국의 사회변동의 본질을 인민들의 구체적 생활 수준에서 여성의 입지를 면밀히 고려하여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李慶淑 교수의 「중국의 여성정책과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金潤煥 교수의 「경제체제 개혁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李溫竹 교수의 「중국의 근대화와 여성에 대한 사회의식」은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전략의 변화에 따라 부침하는 여성의 운명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각각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산당의 경제 및 여성 정책의 변천 등 역사적 배경이 많은 지면을 통해 중복되어 소개되지 않았다면 각 논문의 본론에 해당하는 개혁기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지위 및 활동의 실태가 좀더 풍부하게 다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책의 전체적 도입부분이기도 한 李慶淑 교수의 논문은 全中國女性聯盟 및 全國女性大會의 약사를 중심으로 여성정책의 목표와 정치적으로 기대되는 여성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1949년 이후 경제부흥과 회복기(1949-52), 제1차 5개년 계획기(1953-57), 大躍進기(1958-60), 大躍進으로부터의 회복기(1961-65), 文化革命기(1966-69), 文化革命후의 재건기(1970-76), 현대화 준비기(1976-78), 현대화 추진기(1979-현재)라는 복잡한 역사적 변천을 거치면서 여성정책이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일반적 목표에 어떻게 접목돼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잠정적으로 제시되

는 결론은 공산당내 급진파나 실용파 모두가 여성해방의 독립적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金潤煥 교수의 논문은 중국의 경제현대화와 노동사정의 변천에 관한 자세한 설명에 이어 1970년대 후반이후의 개혁기에 나타나는 여성노동의 새로운 환경과 실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각 생산단위들이 고용과 인사에 있어 자율성을 획득함에 따라 여성 노동자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기업들이 노동계약제를 시행하면서 여성 노동자의 채용을 꺼리게 되었고 정원 재편성 과정을 통해 많은 여성들을 정원의 노동자로 분류하여 퇴직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원인으로서 여성노동의 특수성,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따르는 문제점, 봉건적 여성관, 기업의 과도한 유희노동력 보유 등이 지적되고 있다.

李温竹 교수는 개혁정책의 결과 여성의 경제적 위치가 불안정해졌을 뿐 아니라 혼인과정, 가족관계 등의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복잡한 변화들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혼인과정에 있어 한편으로는 여성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농촌지역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전통적 인습이 되살아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족관계에 있어서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현모양처의 규범이 가지고 온 부담, 산아제한에 따른 남아출산의 부담과 여아 유기 및 살해의 심각성과 이혼을 둘러싼 여성들의 고민 등을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개혁은 표면적으로 개방화되지만 전통적 여성성이 다시 강조되는 양면적 여성상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成英惠 교수의 「중국의 사회복지체제와 여성」에서는 중국 복지체제의 형성과 특성에 관한 자세한 소개에 이어 부녀, 아동, 노인에 관한 복지체제의 실태가 다뤄지고 있다. 이 논문 가운데는 부녀복지를 포함한 중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복지체제의 본질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저자는 중국의 복지체제가 가족 중심의 유교적 전통에 근거해 가족 자체의 생활보장 기능을 강조했으며 또 여성 및 아동 복지는 여성 노동력 활용의 극대화라는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결국 중국의 복지체제 가운데는 여성의 가정내 역할과 사회적 역할이 면밀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盧惠淑 교수의 「중국문학의 현대화와 여성의식의 변모」는 중국 문학이 毛澤東의 1942년 「延安文藝講話」 발표 이후 工, 農, 兵의 세가지 범주를 мем들다 1980년대 개혁기에 들어서 소재와 표현방식의 다양화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혼인관, 애정심리, 성윤리라는 차원에서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여성들의 개방적 태도가 어떻게 문학작품가운데 표현되고 있는가에 대해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개혁 이전에는 경제제도의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변화들이 있었지만 이데올로기에 대한 애정의 종속과 억제적 성윤리의 보편화라는 문제가 있었으며 문학은 이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개혁기에는 여성들의 애정심리의 해방과 성의 개방

화 추세가 뚜렷하며 이는 자유로워진 문학작품의 소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의 교수인 Law Yu Fai의 「Self-Initiative in Education Reform: A Report on Some Case Studies in Guangdong Province, P.R.China」는 사실상 여성의 지위와는 별 상관없이 없는 논문이다. 결론에서는 농촌지역에서 노동력 및 교육비의 부족과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때문에 여아들의 진학률이 낮아지고 심지어는 중퇴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본문에서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론은 주로 실용영어훈련원, T.V. 학교등 새로운 교육제도에 대한 소개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이 책에는 Law Yu Fai 교수의 논문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전체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서에서 여러 저자들은 사회주의 중국 여성의 운명을 다양한 차원에서 평가하고 있지만 공산당의 여성해방관 및 여성정책의 기본목표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생산관계를 개선하거나 생산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예속을 궁극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여겨 여성정책의 방향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도록 설정해 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문제는 혼인 등에 있어 여성을 억압하는 봉건적 악습을 철폐하는 과업을 제외하고는 공산당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경제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해결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특히 개혁기에 여성을 속박하는 사회적 관행이 부활되는 조짐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같은 공산당의 정치적 입장이 지지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결론은 본서의 출판을 계기로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본격화되어 관련 지식의 폭과 깊이가 향상되어야만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장경섭, 서울대 사회학과교수

황성모 저 『통일독일 현장연구』 서울:도서출판 일념, 1990

전 상 인

황성모교수가 지은 『독일통일 현장연구』는 두가지 측면에서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킨다. 우선 이 저서가 보기 드물게 독일통일에 관한 '현장'연구라는 점이요. 1989년 11월, 40년간이나 동서독을 가로막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독일 통일이 가속화되던 1990년 여름에 황성모 교수는 "분단독일의 양측이 통일로 가는 변화의 측면을 르포르타주 형식으로 관찰" (88쪽)하기 위해 통일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다. 그리하여 이 책은 통독'과정'을 현장감있게 독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게 되었다. 『독일통일 현장연구』는 또한 동서독의 통합으로부터 한반도 통일에 관한 示唆와 교훈을 얻기를 바라는 우리의